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 통일부 교육 교재 ‘北 도발·독재·세습’삭제

### 천안함·연평도 포격 등 對南도발 사건들 전체 삭제

통일부가 지난 5일 발간한 통일 교육 교재 ‘북한 이해’ 최신판에서 북한 도발에 관한 장(章)이 통째로 빠지고 북한 인권 관련 부분은 대폭 축소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북한 체제를 규정하는 표현들 가운데 ‘독재’나 ‘세습’ 등은 사라지거나 다른 단어로 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이해’ 최신판에서 전체 삭제된 ‘대남 도발’ 장의 경우 작년판까지 6·25남침, 아웅산 폭탄 테러,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이 기술돼 있었다. 12쪽에서 3쪽으로 분량이 줄어든 ‘인권 상황’ 부분(작년 제목은 ‘주민 인권 침해’)은 공개 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관련 내용이 기술돼 있다가 올해 모두 삭제됐다.

이 신문 인터뷰에 응한 김진무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북한과 교류 협력을 위해 북한의 도발 위협을 최대한 부각시키지 않으려는 의도”라며 “올해 통일 교육원에서 북핵 관련 강지도 폐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북한 이해’는 통일부 산하 통일교육원이 2000년부터 매년 발간해 온 교재다.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공공 기관, 도

서관 등에 통일 교육 교재로 배포된다. 하지만 북한의 부정적 측면을 외면하는 것은 ‘북한을 균형감 있고 객관적으로 이해하도록 돕는다.’는 이 책 발간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국방부가 오는 6월 발간할 예정인 군 장병용 정선교육 교재에서도 ‘종북 세력’, ‘주사파’와 같은 단어가 모두 사라질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여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열왕기상 12:8)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시편 25:4)

**기도** | 하나님, 르호보암 시대에 나라의 지혜로운 자와 어른들의 권고를 무시하고 동년배들의 말을 지혜롭다고 여겨 그릇된 정책으로 나라가 패망하는 위기에 놓였던 것을 봅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선조들이 기도하며 세운 아름다운 전통과 역사를 돌아보게 하시고, 진리의 관점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소서.

복음기도 포토에세이

##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제공: WMM

- 타지키스탄,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날씨가** 매서운지 주머니에 손을 넣고 할머니와 소녀, 엄마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아무도 없는 거리, 차가운 정류장 의자에 앉아 ‘언제나 오려나’ 일제히 버스가 오는 길목을 바라보고 있다. 버스를 타고 돌아갈 따스한 집을 생각하니 더욱 눈길을 돌릴 수 없다. 아마 집에도 돌

아울 이 세 모녀를 기다리는 가족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 세상 즐거움에 빠졌다가도, 공허한 우리 마음은 그곳을 향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저기 방향하던 아들이 언제 돌아오

는지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가 계신다. 돌아가고자 하면 언제든지 맞이해 줄 그 아버지가 계신다. [GNPNEWS]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누가복음 15:20)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54)

## 노환 중에 계십니까?

누구나 기쁜 소식 즉, 복음을 듣기 원한다. 복음을 갈망하는 영혼들을 위해 다양한 믿음의 고백들을 겨자씨선교회에서 제작한 전도지에서 발췌, 소개한다. <편집자>

당신은 사람으로부터 복 있는 노인이라는 말을 들어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세가 될 때까지 대체로 건강했으며, 자녀들도 좋은 직장 and 안정된 가정생활로 효도하고 있으며, 손주들까지 당신에게 기쁨을 주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좋은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떠나가십니까? “가긴 어디로 가? 죽으면

끝인데.”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으면 끝이다.”라는 말은 ‘죽음이 끝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의 또 다른 표현일 것입니다. “천국? 지옥? 있대도 할 수 없지, 까짓것 지옥 가면 되지.”라는 사뭇 용감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만, 이 또한 “지옥 같은 것은 없다.”의 또 다른 표현일 뿐 “난 지옥 가도 괜찮다.”는 진심은 아닐 것입니다. 어쨌든 죽음은 다가오고, 당신의 주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심판도 다가옵니다. 지난 날의 자신을 정직하게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으십니까? “난, 죄 없다.”

고 주장할 수 있으십니까?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죄인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 대신 당신의 죄값을 십자가의 보혈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공로를 의지할 때, 당신은 죄 없는 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100년의 짧은 인생은 잠시 이 땅에 온 소풍과 같습니다. 영원한 천국, 하나님이 계



일러스트=김정선

신 천국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은 눈물도, 고통도, 병도 없고, 다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곳입니다. 지금 노환으로 아무 소망 없이 죽음만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죽음도 소망입니다. [GNPNEWS]

**\* 신앙상담 316전화**  
이 글을 읽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하세요. 복음의 소리 '316전화' ☎ 1670-3160

## INSIDE

뉴스 | 한국

동성에 반대 선언한 한동대, 동성에 행사 주관 학생 징계 2면

기획 |

박해 위기에서 美·이스라엘로 탈출한 기독교인, 강제추방 위기 3면

인터뷰 | 아클라이 선교사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눈 먼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5면



칼럼 |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다 6면

복음과기도미디어는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완성을 소망하며 미디어로 열방을 섬기는 초교파 선교단체입니다.

한국

# 동성애 반대선언한 한동대, 동성애 행사 주관 학생 징계



▶ 한동대학교 전경(출처: 한동대학교 홈페이지)

최근 한동대학교에서 성(性)을 다룬 상품처럼 사고 팔 수 있다거나 다중연애(폴리아모리) 등을 거론했던 강연에 대해 학교측이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동대 장순흥 총장은 한 기독교매체와 인터뷰에서 “징계라기보다 지도다. 학생들이 길을 잃고 헤매 때 올바른 방향을 알려주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이 인터뷰를 통해 장 총장은 성(性)에 대한 한동대의 입장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동대는 지난해 5월 24일 국내 대학 최초로 동성애

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는 기독교 대학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다. 장 총장은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 선언문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오늘날 동성애 물결이 기독교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선제적으로 막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미국의 많은 대학들, 가령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 같은, 복음 전도를 위해 미션스쿨로 시작했던 대학들이 세속화되었지만 한동대만은 성경의 가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학뿐 아니라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미국장로교(PCUSA)처럼 현지 교단도 동성애를 받아들이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리 막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경은 동성애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면서 “동성애도 합법화되면 결국 성경은 그 권위를 잃게 되고 교회는 쓰러질 수밖에 없다. 단, 동성애 자체에 대한 반대이지 동성애자들을 미워하는 건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장 총장은 아시아 기독교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있는 아시아에서 기독교 국가라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한국이 유일하다. 그런 한국마저 복음을 버리면 희망이 없다.”면서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 복음화율 3%의 절망적 상황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지켜야 한다.”며 “한동대 총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GNPNEWS]

아메리카

# 미국, 학교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 표어 부착



▶ 김벌리 다니엘스 의원은 학교가 표어를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출처: tampabay times 캡처)

미국의 여러 주 정부에서 ‘하나님을 언급한 표어를 교내에 사용하자’는 공식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미국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애리조나 주 상원은 교사가 교내에서 하나님을 언급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1289)을 통과시켰다. 와이오밍주와 오클라호마, 아칸소, 플로

리다, 앨라배마,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도 이와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거나 이미 통과시켰다.

이번에 발의된 법에 따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In God We Trust)”란 문구를 교내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미국의 공식 표어이자 1달러 지폐에도 사용된 문구다. 애리조나 주의 경우, 7월 1일부터 교내에 공식 부착 예정이다.

게일 그리핀 공화당 상원의원(애리조나 주)은 법안을 발의하면서 공화당원의 모든 동의로 애리조나 주 표어인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다(라틴어:Ditat Deus)”라는 문장을 영어로 번역해 게시하는 것도 추가 결정했다.

법안이 통과된 오클라호마 주는 11월부터 법안 효력이 발생하며,

모든 강의실과 도서관 등 교내 주요 장소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안에서’란 표어가 붙여질 예정이다. 와이오밍주는 이번 주에 하원에서 세 번째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며 만약 통과되면 상원의 투표를 기다리고 있다. 아칸소 주는 지난해 4월 1일에 법안을 통과 시켜 이번 주부터 표어 부착작업에 돌입했다.

짐 돗슨 하원의원(아칸소 주)은 “미국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표어를 통해 학생들이 좋은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전하는 한편, 김벌리 다니엘스 민주당 상원의원(플로리다 주)도 하원의회 연설에서 “주님은 공화당원이 아니며 민주당도 아니다. 또한, 흑인이 아니며 그는 백인이 아니다. 주님은 빛이다. 학교는 이전과 달리 그 빛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GNPNEWS]

한국

# 한국교회 회개집회, 3.25 인천에서 첫 집회

한국교회회개운동본부와 복음기도동맹은 2018년을 ‘한국교회 회개기도의 해’로 선포하고 한 해 동안 전국을 순회하며 ‘다시복음으로 한국교회회개집회’를 진행한다.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인천내리교회(김흥규 목사)에서 열

리는 인천집회(강사 김용의 선교사)로 시작되는 이번 회개집회는 매주 주일 저녁부터 화요일 저녁까지 매일 오후 7시에 장소를 이전하며 진행된다. 4월 1일에는 울산 우정교회, 4월 8일에는 전주온누리교회, 4월 15일



은 충북 상당교회, 4월 22일 대전 늘사랑교회, 4월 29일 세종시 세종온누리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 010-5938-4621(복음기도동맹 사무국) www.gpally.org [GNPNEWS]

## 오늘의 열방 다이제스트 (3.4~3.10)

복음기도신문은 긴급한 열방의 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열방의 교회, 다음세대, 창궐하는 죄, 이주민 문제, 영적 전쟁 등의 관점에서 전세계 언론과 통신원들을 통해 모아진 열방의 소식을 요약, 정리해서 제공합니다. <편집자>

### 파푸아뉴기니서 규모 6.7 강진... 최소 55명 사망

파푸아뉴기니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이후에도 규모 4.7과 5.2 사이의 여진이 10차례 이어졌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지난 2월 26일 발생한 지진부터 7일까지의 사망자는 최소 55명으로 확인됐다.

하나님, 파푸아뉴기니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을 위로해주시고, 기독교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열정에 더욱 사로잡혀 자연재해도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완전한 소망이 회복되는 기회를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 전역 군인들에게 ‘과외수업’ 받는 브라질 리우 범죄조직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범죄와의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리우의 범죄조직원들이 특수부대나 해병대 출신 전역 군인들로부터 돈을 주고 총기·수류탄 사용 방법 등을 배우고 있다고 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가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상시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해야 할 전역 군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돈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습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눈 앞에 이익이 아닌 미래를 생각하고, 이생이 아닌 영생의 삶과 심판을 전하는 복음의 소리가 브라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 방글라데시서 이슬람 극단주의 비판 교수 흥기에 질러

방글라데시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하고 세속주의를 지지하는 사잘랄 과기대 전기전자공학과 무함마드 자파르 이크발 교수가 지난 3일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휘두른 흥기에 다쳤다고 5일 현지 일간 다카트리뷰니언이 전했다.

자신의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자비한 행동을 가하는 극단주의 무슬림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오니 방글라데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GNPNEWS]

## 느헤미야52기도 참여교회 및 단체

2018년 3월 19일 ~ 3월 31일

### 3월 19일~24일

3.19~24(매일 0시~24시)

▶ 전남 신안 / 열방선교센터 (강\*\*) 010-7364-9982

3.19~20, 22~23(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3.19~20, 22~23

(매일 10:30~11:30분)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 010-5528-5087

3.19(0시)~21(24시)

▶ 서울 광진구 / 빛과소금교회 (권\*\*) 010-7754-1726

3.20~23(매일 15시~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3.22(10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 010-8482-8651

3.23(10시~14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3.23(10시)~24(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3월 26일~31일

3.26~31(매일 0시~24시)

▶ 경기 성남 / 선한목자교회 (김\*\*) 010-5057-2149

▶ 광주 북구 / 예수마음교회 (박\*\*) 010-2330-5849

▶ 대구 동구 / 대구호산나교회 (정\*\*) 010-3822-8040

▶ 네팔포카라 / 네팔가정공동체 (김\*\*) 010-4743-9397

▶ 경기 성남 / 새마음교회 (김\*\*) 010-4090-2495

3.25(14시)~26(02시)

▶ 대전 서구 / 반석중앙교회 (임\*\*) 010-2276-8221

3.26(0시)~28(24시)

▶ 부산 사하구 / 다대중앙교회 (김\*\*) 010-4109-7655

3.26~27, 29~30

(매일 10:30~11:30분)

▶ 경기 의정부 / 열방교회 (최\*\*) 010-5528-5087

3.26~27, 29~30(매일 10시~12시)

▶ 경기 안산 / 안산순복음교회 (김\*\*) 010-8432-3698

3.27~30(매일 15시~17시)

▶ 경기 시흥 / 은혜교회 (위\*\*) 010-4510-1070

3.29(10시~12시)

▶ 전남 여수 / 여수선민교회 (윤\*\*) 010-8482-8651

3.30(10시~14시)

▶ 경기 김포 / 김포전원교회 (강\*\*) 010-4128-0448

3.30(10시)~31(10시)

▶ 서울 광진 / 한국중앙교회 (황\*\*) 010-7766-3100

# 박해 위기에서 美·이스라엘로 탈출한 기독교인, 강제추방 위기

자국의 박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탈출한 기독교인들이 새로 정착한 곳에서마저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뉴저지에 있는 50명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가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로 이들에 대한 추방집행이 중단됐다. 에스터 살라스 지방법원 판사는 미국시민자유연맹(Civil Liberties Union)이 이민자들의 체류를 요구하는 연방집단소송건에 대해 연방 이민조사국(ICE)이 인도네시아 인들을 강제추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면 심각한 박해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셈이다.

## 인도네시아 50명 기독교인, 미국에서 추방 위기

ACLU 이민자 권리 프로젝트(ACLU, Immigrants Rights Project)의 겔러트(Gelernt) 부국장은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은 사활이 걸린 문제다. 우리는 미국에 장기간 거주해온 이들에게 미국에 체류할 자격이 있음을 보여줄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면서 “대규모 추방과 관련된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원이 외국인에

게도 정당한 법적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보장을 적용할 것을 분명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인구의 대부분이 무슬림인 인도네시아는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박해순위 36위이다.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권이 권력을 장악했을 당시 미국으로 도망쳐 나왔다. 미국으로 건너온 이들은 2009년부터 해마다 연방이민조사국(ICE)에 신원신고를 함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걸쳐 추방당하지 않고 경제 활동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종료한 후 2017년 8월부터 귀국 명령을 내리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한편 지난 1월 25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던 두 명의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체포됐다. 체포된 해리 팬지마난(Harry Pangemanan)은 1993년에 미국으로 건너와 뉴저지 중부에서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며 하이랜드파크교회에 다녔다. 그는 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하며, 특히 초강력 태풍 샌디 이후에 약 200개의 집들을 재건하는 것을 도왔다. 그는 “우리는 매일 조금씩 한 가족처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 유용한 일을 하라. 내일



▶ “그들을 머물게 하라”는 외침과 함께 박해받는 인도네시아 이민자들의 추방을 멈추라는 팻말(출처: nj.com)

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 이스라엘에서도 2만 명 이주자에게 추방 통지

한편 비슷한 시기에 이스라엘에서도 이와 같은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스라엘 당국은 아프리카 출신 남성 이주자 2만 명에게 추방통지서를 전달했다. 이들 대부분은 수단과 에리트레아 출신이다. 통지서에는 60일 이내에 이스라엘을 떠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투옥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이스라엘 당국은 이주자들에게 3500달러의 보조금을 제공하면서 나라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주겠다고 밝혔다. 10년 전까지 약 4만 명의 아프리카 이주민들은 자국의 박해를 피해 이스라엘로 건너왔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의 공식 홀로코스트 기념관인 야드 바셈(Yad Vashem)의 관계자는 성명을 통해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 경험은 여러 세대를 거치며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강화시킨다.”면서 “이스라엘 당국은 이스라엘에 이주한 그 어떤 사람도 목에 칼날이 드리워진 상태로 피난처를 제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피력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 인도네시아 기독교 이주자들의 추방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법원 판결을 축하하는 하이랜드파크교회의 세스 케퍼 데일(Seth Kaper-Dale) 목사와 해리 팬지마난 가족(출처: mycentraljersey.com 캡처)

# “지금 역사상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각하다”



▶ ISIS에 의해 무너진 세인트 에브라임의 모술 시리아 정교회(출처: Aacnuk.org 캡처)

“역사상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마 로마 콜로세움이나, 성경을 공통 언어로 번역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던 중세 시대 종교개혁을 떠올릴 것이다. 이 밖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건은 역사에 수도 없이 많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서 ‘박해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놀랄만한 것은 지금이 역사상 어느 때보다 기독교 박해가 심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에서 박해받는 교회에 목회 및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공하는 가톨릭 박해 자선단체 ACN(Aid to the Church in Need)이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발표했다고 렐러버트 매거진(Relevant Magazine)이 보도했다.

이러한 기독교 박해의 증가는 상당수가 중동의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IS)나 나이지리아의 보코하람(Boko Haram)과 같은 테러집단에 기인한다. 이런 테러단체들은 주로 기독교인들을 목표로 삼는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독교 박해가 가장 심한 13개 국가 중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어떤 나라도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나마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선된 것처럼 나타난 이유는 상황

이 이미 최악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악화 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란, 인도네시아, 북한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은 종종 서양 사람들로 부터 잊혀지는 것처럼 느끼곤 한다. 이는 특히 서방 정부들이 그들에게 충분한 원조를 지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매년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를 발표하는 오픈도어(Open Doors)의 데이비드 커리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을 제시했다.

“우리 단체 이름을 오픈도어(Open Doors)라고 한 이유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문에는 닫힌 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디든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박해세력들과 계속 맞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에게 출입 금지 구역은 없습니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 바텔라 세인트조지교회에서의 니느웨 부흥위원회 재건행사(출처: acnuk.org)

# 구글홈, ‘무함마드’는 검색되지만 ‘예수’는 검색 불가

음악이나 TV 프로그램, 영화를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인 ‘구글홈(Google Home)’에서 ‘무함마드’나 ‘석가모니’, ‘사탄’은 찾을 수 있지만 ‘예수’에 관한 검색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이 사실을 발견한 후 많은 기독교인들이 분개하고 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전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구글홈이나 아마존 알렉사(Alexa) 같은 앱은 날씨를 알려 주고, 다양한 퀴즈에 답하며, 전화도

걸 수 있어 미국의 성인 6명 중 1명이 사용할 만큼 대중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앱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편견을 가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TV 제작자이자 작가 및 연설자인 데이비드 샘은 알렉사와 구글홈의 대답을 비교하는 실험을 했다.

샘이 구글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묻자 “죄송합니다.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미안하지만 알 수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지

도자들인 무함마드나 석가, 사탄은 확인할 수 있었다.

샘은 “구글에 내가 누가인지 물었을 때 구글은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면서 “구글은 예수와 하나님을 현명한 오디오 기계에서 제거해 버린 것 같아서 섬뜩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결정을 만드는 마술 같은 것이 있거나 또는 어떤 감시



▶ 지난 2017년 11월에 구글에서 출시한 인공지능(AI) 스마트 스피커 구글홈

가 있는지는 알 수 없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일이었는지 즉시 밝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샘은 이러한 문제를 시정하기 위

해 구글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NPNEWS]

번역= 복음기도신문 국제팀

기획 | 조선선교열전 (17) - 전라남도 편

# 애양원, 버려진 한센병 여인에게서 시작된 사랑의 역사

종교개혁 500주년을 넘긴 2018년, 한국의 기독교 역사는 133주년을 맞았다. 구한말부터 본격화된 개신교 선교 역사는 문화, 교육, 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역사와 맥을 같이 하며 한반도의 근대화와 함께 진행됐다. 우리나라 곳곳의 선교역사를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되새겨본다. <편집자> 기독교인이라면 한번쯤 애양원을 찾는다. 이 애양원 설립에 기여한 사람은 포사이드(Forsythe) 선교사이다. 그는 미국 루이빌 의과대학에서 공부하고, 쿠바에서 벌어진 미국과 스페인 전쟁 때 군의관으로 참전했다. 전쟁 속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의 생명을 더 깊게 체험했다. 그는 1904년 전주예수병원 2대 원장으로 부임해 의료 활동을 하던 중 왕진을 갔다가 고향으로부터 습격을 받아 중상을 입고 미국으로 후송되었다. 상처가 아물자 다시 한국으로 온 그는 광주병원에서 사역하던 윌슨(wilson) 선교사의 급한 전갈을 받는다. 순천지역의 오웬 선교사가 폐렴으로 쓰러진 위급 상황이었다.

## 버림받은 한센병 여인

포사이드는 말을 타고 광주로 가던 중 나주를 지날 무렵 길가에 쓰러져 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다. 한센병 환자였다. 마을에서 버려진 채 오랫동안 떠돌던 여인의 물결은 말이 아니었다. 손가락 발가락

은 문드러져 있었다. 가까이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포사이드는 그녀를 말에 태워 광주로 향했다. 천형(天刑)이라고 불리우며 사람들에게 천대받던 한센병 환자를 향한 포사이드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었다.

20km 정도를 걸어 광주 선교부에 도착했을 때, 포사이드는 탈진 상태였다. 동료 오웬 선교사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큰 키에 젊고 건장한 미국인 의사가 최악의 상태인 한센병 여인을 말에 태우고 걸어서 광주에 나타난 사실은 오웬 선교사의 장례식 못지않게 광주 지역에 화제가 되었다.

포사이드와 윌슨 박사는 한센병 여인을 진료소에 입원시켰다. 그러나 환자들의 거센 항의로 여인은 바깥의 벽돌 가마를 임시 거처로 써야 했다. 며칠 전 장례를 치른 남편의 침대를 내어 준 오웬 부인은 당시 상황을 1909년 8월 '미셔너리(The Missionary)'지에 실었다.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이 아니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포사이드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물론 반대도 심했습니다. 광주로 환자를 데리고 왔을 때 병원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어 마당 구석에 있는 가마터로 옮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포사이드는 말쑥한 신사복 차림으로 고름투성이 환자의 팔을 잡고 부축했으며, 그 광경에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포사이드는 자신이 아는 한국말을 최대한



▶ 1926년 여수 애양원에서 한센인들이 물을 길는 모습(위)과 1910년 선교사들 단체사진. 맨 뒷줄 왼쪽이 포사이드(출처: monthly.chosun.com)

동원해 무엇 때문에 그녀를 도와주는지 설명해 주고 그녀의 생각도 이끌어냈습니다... 벽돌 가마에 모인 사람들은 한센병 여인이 포사이드 의사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나오는 것을 보고 '마치 주님을 보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쪽으로 올 때의 광경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센병 여인은 포사이드가 전하는 복음을 알아들었다. 이따금 한국인 기독교 신자들과 선교사들이 그녀를 방문해 예수님에 대해 말

해 주고, 예수님께서 그녀를 위한 처소를 준비하였고, 새로운 몸으로 태어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여인은 "내 동족들은 여러분처럼 나를 대우해 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감사했다.

## 애양원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

광주 선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센병으로 버려진 환자들을 위해 모금을 하고, 대여섯 사람을 돌볼 수 있는 방 세 개가 있는 집을 지었다. 윌슨 박사는 에든버러에 있는

극동지역 한센병 협회에서 재정 지원을 얻었다. 윌슨이 한센병 환자를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환자들이 광주로 몰려들자 1912년 광주 봉선리에 E자형 병원 건물을 짓고 본격적으로 한센병 환자를 치료했다.

애양원은 이렇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포사이드 박사의 섬김으로 시작되어 초대 원장 윌슨 선교사로 이어졌다. 1928년 이 병원은 환자의 증가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로 여수 율촌면 현 애양원(애양병원 역사박물관)으로 이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곳은 포사이드, 윌슨 선교사 뿐 아니라 애양원 예배당 담임 목사였던 손양원 목사의 진한 발자취도 남겨져 있다.

애양원은 '사랑으로 양을 키우는 동산'이라는 뜻이다. 당시의 한센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꺼릴 뿐 아니라, 가족들도 버리고 살아야 할 만큼 천형이었다. 그들은 살아있으나 지워져야 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에게는 세상 누구보다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는지 모른다. 죄인을 위해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 받고 천대 당하는 한센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룬 역사이다. [GNPNEWS]

참고문헌: <한국선교이야기>(조지 톰슨 브라운 지음, 도서출판 동연, 2010)/www.monthly.chosun.com 월간조선



## 선교 통신

#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셀람 노?(Selam neo?) '안녕하십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은 만나면 먼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는 '평화가 있습니까?'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 땅에도 평화가 속히 오기를 기도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지난 2월 15일 에티오피아의 하일레마리암 데살렌(Hailemariam Desalegn) 총리가 스스로 하야를 했습니다. 다음날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런 위기상황은 2015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정부가 수도인 아디스아바바를 양 사방 100km 확장한다고 발표했는데 전체인구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 오로모 종족이 자신들의 땅을 현 정부에게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반정부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 천 명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의 과잉 탄압이었습니다. 이런 탄압이 누적되다보니 2주 전에 데모가 시작됐습니다. 위기를 느낀 정부는 약 6500명의 시위가담자들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더 많은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자유를 준다고 그들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땅을 위한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엔 새로운 총리를 뽑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영적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주시기를 위한 기도가 절실합니다.

시위의 주축 종족은 이 나라에서 가장 원조의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종족입니다. 원조는 말 그대로 값을 이유도 의무도 없습니다. 한

세대를 넘어 다음세대, 그 다음세대까지 이어지는 원조는 이제 이들에게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현상은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나타납니다. 정교회든 기독교든 무슬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만 다소 있을 뿐입니다.

개신교 교단 중 큰 교단들은 대체적으로 국제적인 선교단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걸모습은 바람직하지만 언젠가부터 선교단체의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시 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던 때 주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



▶ 에티오피아 정교회

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사 56:6-8)

이 땅에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있다고, 보이는 것

이 전부가 아니니 절망하지 말라고 약속해주셨습니다.

그 소망으로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복음이 확장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도합니다. [GNPNEWS]

에티오피아= J선교사

나눔&나눔 삶의 나눔으로 되새겨 보는 하나님의 은혜

# “아이들을 통해 주님의 눈 먼 사랑을 배우고 있어요”

현지 교회에서 만난 성도가 딸을 맡아달라는 요청에서 시작된 공동체에 위기의 아이들이 하나둘씩 들어왔다. 고아원에서 쫓겨난 아이, 아빠의 폭력으로 자살을 생각하던 아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부부 등 하나님이 보내주신 공동체 식구들과 믿음의 싸움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있다는 아클라이(K국) 선교사. 때로는 선교사로서 부끄러운 죄 된 자신의 실존을 드러내야 하는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위로에 힘입어 다시 일어나 영광의 길을 가는 그녀의 삶을 들었다.



위기의 아이들의 엄마 아클라이 선교사(K국)

-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현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방과 후 교실 같은 거죠. 저는 이곳을 비전센터라고 불러요. 40명 정도 되는데, 신앙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아이들도 함께 공부해요. 토요일에는 청소년클럽을 여는데, 서로 교제도 하고 게임도 하고, 주제를 가지고 강의와 토론도 해요. 이성교제, 가정, 용서, 정직함... 성경에 근거해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이 많아요. 매년 캠프도 함께 해요.”  
 - 아이들과 공동체로 살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주님이 보내주신 아이들과 한 명 한 명 같이 살다보니 그렇게 됐어요. 많을 때는 일곱 여덟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마리아(17살, 가명)와 누리아(18살, 가명)라는 자매 두 명과 살고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대학에 가거나 각자 진로를 따라 타지역에 있어요. 대부분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이거나, 아빠가 재혼해서 아이를 돌보지 않는 가정이었어요.”  
 - 처음 어떻게 아이들과 함께 살게 되셨는지요.  
 “저는 모태신앙에 외동딸이에요. 대학 때도 혼자 자취 생활을 했기 때문에 혼자 익숙했죠. 그런데 27살에 단기선교지인 U국에서 인정하기 싫었지만 제가 공동체에 부적합자라는 걸 처음 알게 됐어요. 협력했던 선교사님들은 다들 좋은 분들이셨는데, 사역이 힘든 게 아니라 같이 사는 게 힘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연약한 성품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몇 년 후 K국 장기선교사로 나오면서 공동체는 꿈도 꾸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달랐어요. 언어와 현지 적응이 끝나고 혼자 살아야겠다고 마음먹고 이사를 했는데, 하루는 현지 교회 성도가 할 얘기가 있다고 찾아왔어요. 이혼하고 아들과 딸을 데리고 있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도시로

일하러 가는데 딸을 맡아달라는 거예요. 새엄마와 죽어도 살 수 없다고 저와 살게 해 달라고 부탁했대요. 전에 그 아이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서럽게 울던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함께 살게 됐죠. 다음엔 제게 수학을 배우던 한 여자아이에게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집이 아니라 창고 같은 곳에서 엄마와 둘이 지내는 아이였어요. 가보니 엄마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고, 쓰레기와 역겨운 냄새로 잠시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작은 여자아이가 무섭다고, 하룻밤만 자고 가면 안 되냐고 했어요. 아이를 놓고 갈 수 없었어요. 밤새도록 그 아이 엄마의 술주정을 들으면서 알코올 치료센터에 가야 된다고 설득했어요. 그렇게 엄마를 치료센터에 보내고 그 아이는 저와 함께 살게 되었죠. 그 아이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마리아예요.”

### 나의 생각과 다른 주님의 계획

주님은 그렇게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이끌고 오셨다. 고아원에서 쫓겨나 소녀원(청소년보호수감소)으로 가게 된 알프나이(가명), 아빠의 폭력으로 자살을 생각했던 마리아(가명), 노숙자가 되어 갈 곳이 없었던 부부까지... 함께 살게 된 아이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걸 알게 하셨다. 결코 할 수 있어서 한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주님은 거절할 수 없게 한 단계씩 인도하셨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려 주셨다.  
 “알프나이를 맡는 것은 너무나 큰 도전이었어요. 고아원에서 쫓겨나 또 다른 고아원으로 갔는데 너무 열악했어요. 고아원 선생님들도 지쳐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고, 그 아이도 너무 배고파했어요. 그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다. 네가 그 마음을 전해주지 않겠니.’ 알프나이에겐 그 말을 해 주고 둘이 안

고 영영 울었어요. 그 고아원에서 마저 쫓겨나 범죄자들이 있는 소녀원에 가야하는 알프나이를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그렇게 한 명이 세 명이 되고, 많을 때는 현지인 부부와 다섯 명의 여자아이와 살기까지 정말 주님이 하셨다고 밖에 할 수 없어요. 외동딸이고, 집은 깨끗이 정돈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조용히 쉬는 것을 좋아하는 저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요.”  
 듣고 있자니 인도에서 팔려가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동체를 꾸렸던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이 생각났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그렇게 한 순종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은혜 가운데에도 함께 사는 것은 매순간 내가 죽는 일이었다.  
 “여자아이 세 명과 살 때였는데, 두 명은 자기 생각을 거침없이 다 말하는 아이였어요. 그날도 여러 가지 일로 잔소리를 했는데 한 아이가 이러는 거예요. ‘왜 맨날 우리만 잘못을 인정 안한다고 말해요? 선생님도 실수하고 우리 앞에서 인정 안하잖아요.’ 너무 건방진 말인데 사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그 아이에게 용서를 구했어요. 감정적으로 잔소리한 것, 가르치면서 나는 행하지 않는 것이요. 그랬더니 ‘알겠어요. 용서해줄게요.’ 하고는 자기 방으로 가 버렸죠. 서로 용서를 구하는 감동과 은혜의 시간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끝난 적도 있었어요(웃음). 또 다섯 명의 여자아이들과 살 때였는데요, K국에 오기 전까지 제 자랑은 윤기 나는 머릿결이었어요. 그런데 생활용수에 들어있는 석회 성분 때문인지 점점 머릿결이 나빠졌어요. 그래도 한국 샴푸를 쓰면 좋아졌는데, 아웃리치 온 한국팀이 구하기도 힘들고 비싼 한국 샴푸를 어쩌다 주고 가면 기쁨으로 쓰곤 했죠. 그런데 여자아이들이라보니 샴푸가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한국 샴푸를 몰래

숨겨놓고 저만 쓰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나라 민족을 섬기러 왔다고 하면서 샴푸 하나 포기 못하는 나는 뭐지? 그런 사건들을 통해 주님은 하나씩 저를 포기하게 하셨어요(웃음).”

### 샴푸를 포기하며 주님 앞에 서다

- 알코올 중독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좀 더 나눠주세요.  
 “그분들과 함께 산 시간은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얼마나 부지런하고 착한지 함께 살면서 많은 힘과 도움을 얻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술이었어요. 끊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한국에 잠시 다녀오는 동안 옛 친구를 만나 다시 시작됐죠.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 몰랐어요. 술만 마시면 완전 딴 사람이 됐어요. 전문 치료가 필요했죠. 감사하게도 알코올 치료센터 원장님이 와 주셨는데, 두 부부와 밤새도록 면담을 하신 결과 제게 충격적인 얘기를 해주셨어요. 알코올 중독 치료는 완전한 자기 절망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이분들은 너무나 교만하다는 거였어요. 술을 마시면 다시 제가 도와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망한 사람의 겸손이 없다는 의미였죠. 제가 그분들에게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그분들을 놓을 때라고 말씀하셨죠. 치료센터를 강력하게 거부하는 그분들에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며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그 상황만 본 다른 아이도 ‘갈 데도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쫓아낼 수 있냐.’고 어려워했어요. 그때 알게 되었어요. 없을 때 나눌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 믿음도 필요한 것, 그것이 그를 살린다는 것들이요. 주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통해 저를 인도하시고, 키우시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실은 그 부부와 아이들을 통해 사랑을 배웠어요. 저를 ‘엄마’라고 부

르며 안아주는 아이들이 있기에 제가 싱글인지, 외로운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 사역하시면서 특별히 어려움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존재적으로 절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호세아이고, 고멜과 같은 K국의 영혼들을 끌어안으며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열방의 현장에서 섬기면서도 여전히 포기하기 싫은, 감추고 싶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함께 사역하는 현지 형제와의 관계였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형제·자매로만 지냈지만, 감정적인 교제는 계속됐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짓지 않았지만 저는 계속 그 형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본 거죠. 함께 살던 부부가 다시 술을 마시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저도 그 형제와 헤어지고 만나고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을 싸서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주님은 고멜 같은 저를 다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가 나를 위해 섬기고 애쓸 때도 내 딸이지만, 넘어지고 쓰러져서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그때도 너는 여전히 내 딸이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 가라! 나의 옷을 입고 살라라.’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서 함께 사는 아이들 앞에서 그런 나의 모습을 말할 때 고민도 되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고멜과 같은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요.”

### 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사랑

- 정말 아멘입니다. 복음 앞에 선 아이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1월에 V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두세 명 정도 데리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주님의 열정은 엄청났어요. 아이들 안에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V시에 계신 선교사님께서 직접 센터가 있는 곳까지 와서 아이들을 만나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계속되는 방향으로 오랫동안 연락이 끊어진 에르킨(가명)이라는 형제도 극적으로 참여하게 됐죠.  
 부모님 반대로 못 가게 된 자스쿨(가명)은 눈물로 부모님을 설득해 가게 됐어요. 또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는 베르멧(가명)을 위해 기도했는데, 그 아이도 함께 가겠다고 결정했어요. 주님께서 아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 함께 사는 아이가 선물한 그림

(6면에 계속)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 연약갱신 (4)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짜리'다

다윗왕국이 세워지는 모든 과정은 전적인 하나님의 연약 성취다. 자격 없는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신 이유는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며 또한 그 부르심에 반응할 자격이 오직 믿음 뿐임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부르심 역시 전적인 은혜다. 자격도, 실력도 없는 우리를 택하신 즉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정죄함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이 일은 우리의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던 일이었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이미 0%의 부적격자였다. 100% 확실한 게 있다면 우리는 분

명한 지옥자식이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완전한 반역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총탄함을 누린다는 것은 꿈꿀 수조차 없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근거로 한다(계 1:5~6).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와 심판과 멸망을 아들의 피 값을 치르고 대속하셨다.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다.

우리의 거룩도 나에게 근거가 있지 않다. 주님의 완전한 보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도 나의 연약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이다. 우리의 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실 수 없으시다. 그

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미 받은 줄로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다(요일 5:14~15).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승리한 자다! 행복자다! 우리의 승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된다. 주님이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무능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해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보아야 한다(고전 1:24~29).

사울왕국을 대체하여 세우신 다윗왕국은 육체를 따라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수준으로는 어리석어



일러스트=노주나



보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났다.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내 형편이 어떠한데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다. 주님은 강하시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하다. 그 나라에 속한 우리는 어떤 것에도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여! 그 나라의 부흥과 선교 완성을 위해 우리를 쓰신다고 말씀하실 때 나의

가능성, 잘남과 못남, 어떤 것도 보지 말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만 바라보라. 십자가 복음을 만나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짜리'다. 주님이 나의 지혜와 의로움, 거룩함과 구원함을 완성시키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반드시 누리게 된다(2016년 8월 메시지 정리). <계속> [GNPNEWS]

김용의 선교사  
(순회선교사. LOG미션 대표)

복음과 기도 미디어  
GOSPEL & PRAYER MEDIA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2017 다시복음앞에**  
**강의 수록 USB 발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 롬 1:17

## RETURN to the '오직 믿음으로' GOSPEL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5대 강령 중 "오직 믿음" 주제로 진행된 2017 다시복음앞에 집회 강의영상과 헤브론원형학교의 성경입체낭송 "로마에 온 편지" 영상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강의 수록 USB(1개) 25,000원

---

**복음의 삶을 위한 소식지 시리즈 2**  
Life in the Gospel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 받을 수 있는가?"

아름답고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로마서 10:15

이 전도지는 누구든지 읽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을 열수 있는 짧은 글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손쉽게 들고 다니며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전도지 규격 : 182X157mm(B5사이즈)  
가격 : 100매(10,000원) 이상 주문 가능

구입문의 야긴과 보이스 032-887-0235 www.jakinnboaz.co.kr

Interview <5면에 이어>

### "복음을 듣고 아이들이 변화되었어요"

그렇게 열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함께 복음 앞에 서게 됐어요." 러시아어로 진행된 복음학교에서 아이들은 복음을 듣고 변화했다. 베르멧은 자기가 구했던 답을 찾았다고, 주님이 어떤 분이냐고 고백했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계획했던 진심을 내려놓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과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에르킨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철저히 고백했고, 어렵지 않다. 여전히 아이들과 싸우고 반항을 하다가도 "아! 옛날 에르킨은 십자가에서 죽었어."라면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던 누리아는 울면서 엄마를 용서한다고 고백한 후,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시작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용서 못해요."라고 했던 말은 "용서할 거예요. 애쓰고 있어요."로 바뀌고 있다.

"매주 말씀기도 모임으로 모이고, 함께 복음을 공부하고 중보하며 서로를 격려해요. 그렇게 주님은 계속 아이들 심령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 이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요! 주님의 눈 먼 사료를 내려놓고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가 기도하며 고민하고 있다. 컴퓨터 게임과 나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에르킨은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철저히 고백했고, 어렵지 않다. 여전히 아이들과 싸우고 반항을 하다가도 "아! 옛날 에르킨은 십자가에서 죽었어."라면서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인 엄마를 용서하지 못하던 누리아는 울면서 엄마를 용서한다고 고백한 후, 조금씩 자신을 내려놓는 일을 시작했다.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에게 "절대로 용서 못해요."라고 했던 말은 "용서할 거예요. 애쓰고 있어요."로 바뀌고 있다.

K국= E.J.

▶ K국 청소년들, 한국 단기팀과 전도여행 가서 섬김이들과 함께



# “멈추지 않는 민음의 릴레이 경주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 4:7)

아들을 다음세대 신앙훈련학교에 보내면서 나도 함께 섬김으로 섬기며 국내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결국 아웃리치를 가지 않기로 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던 중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주셨다. 다음세대들의 훈련학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은 아이들과 함께 믿음으로 달려나갔던 선생님들이 계셨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주로 아이들에게 열매를 맺으시고 그 영광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 릴레이 경주자와 같이 달려온 선생님들과 바통터치 하지 않고 멈추어버리면 내가 그 영광의 날을 방해하는 자로서는 것 같아 두려웠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아웃리치 가운데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여정을 시작했다.

다른 훈련을 받아본 적 없는 내가 헬퍼가 되어 처음 떠나는 아웃

리치는 부담이 됐다. 그러나 주님은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으로 은혜를 주셨다. 난 할 수 없지만 능치 못하심이 없는 그분께서 행하신다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께로만 집중할 수 있게 하셨다.

첫날 숙소로 정해진 교회에 도착해 짐을 풀고 감사 예배를 드렸다. 헬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만 팀장님의 배려와 도움으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갔고,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우리 팀은 연령대가 맞지 않아 관계가 애매했다. 남보다 자신을 우선으로 살아왔던 삶과 서로를 잘 알지 못하는 서먹함 속에서 팀을 연합하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많은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는 아웃리치의 여정 가운데 팀장님은 무던히도 노력하셨다. 사랑과 말씀으로 주님의 통로가 되어 리더의 자리를 굳게 지키고 계셨다. 이 섬김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다. 그리고 부드러워진 마음에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주님은 아이들에



일러스트=박남희

게 NGO단체 체험관을 통해 가난과 굶주림으로 살아가는 영혼들을 품게 하셨다. 또한 복음 때문에 박해 받는 나라들을 보며 주님을 자유롭게 믿고 성경을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게 하셨다.

### 아이들 마음에 빛을 비추시다

아웃리치의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아닌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때론 힘겹게 느껴지는 날

도 있었지만 여러 일정을 경험하면서 육체의 피로보다 주님께 나아가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이 더 컸다.

매일 이동하는 여정이기에 피곤할 텐데도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를 사모했다. 아웃리치 참여를 거부했던 아이는 그 누구보다 말씀을 사모하며 자리를 지켰고, 훈련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때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던 아이는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을 만났다. 얌전하고 조용하게 있던 아이는 밝은 모습으로 씩씩해졌고 자기의 것을 나누기 힘들어하던 아이는 동생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둡고 단단한 마음이었던 아이들이 말씀의 자리에 거하니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빛을 비추셨다. 주님 안에 거하니 내 안에 빛 되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 민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지 않고 달려가니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열방팀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섰던 아이들을 사랑하고 축복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GNPNEWS]

곽은정 사모(동면교회)

### \* 민음의 글을 받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민음의 삶을 나눠주세요. 민음의 증인을 추천해 주셔도 좋습니다. gnpnews@gnmedia.org ☎ 070-7417-0408



## 美하원, 북한 수용소 폐쇄 촉구 결의안 발의

이 코너는 한반도의 부흥을 소망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나 사건,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다. <편집자>

미국 하원이 반(反) 인도적 범죄 행위가 만연한 북한 수용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보도했다. 결의안은 북한 정부의 반인도 범죄 전담 조사위원회를 설립하고 북한의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을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국제사회에 촉구하

는 내용을 담았다. 올해 들어 미 의회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안건이 상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VOA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 시간)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H.RES.763)은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정부의 반인도 범죄 행위를 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조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벌어지는 반인도 범죄에 연루된 개인들을 제재하고 북한 수용소 수감자들이 만든 상품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도록 촉구했다.

결의안은 북한 수용소에 만연한 각종 인권 유린 행위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북한 수용소 중 가장 끔찍한 곳은 ‘관리소’로 불리는 정치범수용소로 현재 약 8만~12만 명이 수감돼 있다. 1981년부터 2013년 사이 수용소에 수감된 약 50만 명 가운데 4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결의안은 유엔인권위원회(UNCHR)의 북한 인권 실태 보고



▶ 북한 수용소의 전면 폐쇄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는 마이크 콘웨이 공화당 하원의원(출처: voakorea.com 캡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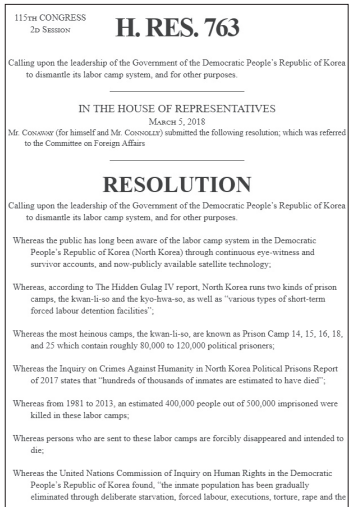
서를 인용해 수감자 숫자가 점차 줄고 있는 것은 의도적으로 행해진 기아와 강제 노동, 처형, 강간, 강제 낙태 등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성 수감자에게 가해진 강간과 강제 낙태 등 잔혹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를 저지른 주요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을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진전이 없는 상태다.

한편, 이처럼 해외에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한국 국회나 정부는 이렇다할 법안 채택은 물론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없다.

또한 유엔의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발의로 북한 정권 지도부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2016년 5월 유엔인권사무소(서울)가 개설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렇다 할 활동실적은 없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평가다. [GNPNEWS]



▶ 결의안 H.RES.763(출처: 미국 국회도서관 congress.gov 캡처)



### 새 생명의 시작

고대 로마시대의 십자가는 타협을 몰랐다. 로마는 자신에게 대항하는 적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대적자를 완전히 제압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러나 사도들이 이 십자가를 전하는 곳마다 혁명적인 능력이 나타났다. ‘죽음의 십자가’라는 정체성에 충실한 선포였기 때문이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곧 내가 죽은 십자가’라는 의미였다.

하지만 ‘죽음의 십자가’가 ‘장식의 십자가’로 변질되면서 기독교는 마술과 미신적 종교로 전락했다.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된 십자가를 숭배하고 있다. 성경적 십자가는 인간적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의 적을 죽이는 데만 관심이 있을뿐이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옛 생명, 즉 아담의 본성을 완전히 끝냈다. 그때 비로소 새 생명이 시작된다.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 [GNPNEWS]

<철저한 십자가(2011), A.W.토저, 규장각>

뷰즈인 아트  
Views in Arts

티치아노의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

# 회개의 눈물이 빚어낸 헌신

일렁이는 금발 머리는 어깨 아래로 덮여 있었다. 하얀 피부의 여인은 하늘을 쳐다보며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림 속 여인은 베니스의 대가 티치아노가 그린 '막달라 마리아'다. 16세기 유럽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회개의 상징이면서, 한편 변화된 성도의 모범이라는 미명하에 허용되었던 에로티시즘의 탈출구가 되기도 하였다. 티치아노가 1533년에 그린 또 다른 막달라 마리아 역시, 이 작품과는 다르게 마리아의 관능적인 육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의 회개가 티치아노에게 전이되었던 것일까. 30여 년이 지난 뒤 그려진 이 그림에서의 마리아는 경건해 보일 뿐 아니라 그 어떤 작품에서보다 회개하는 심령이 잘 표현되었다.

전작의 누드 대신 마리아의 몸에

는 옷이 걸쳐졌다. 관객을 의식하는 듯 보였던 의문의 눈빛은 통렬한 눈물로 바뀌었다. 눈물의 진정성은 별개진 눈 주위 묘사로 표현

“  
30년 뒤 그려진  
그림에서  
회개의 심령이  
잘 표현돼  
”

되었다.

또한 마리아 주변에는 전작에 없는 물건들이 그려졌는데, '메멘토 모리(죽음을 기억하라)'의 메시지를 상징하는 해골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성경이 함께 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표시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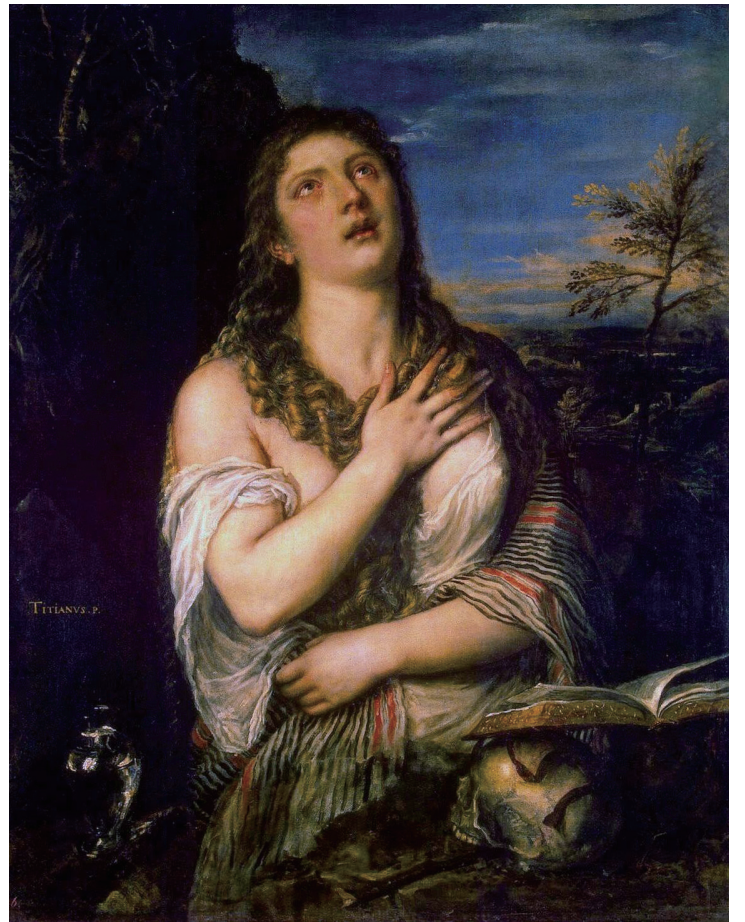
주는 향유 옥합도 그려졌다. 이 향유 옥합은 예수님의 발아래 완전히 깨어질 것이고 그녀의 풍성한 금발은 예수님의 발을 닦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리아는 자기 헌신을 향유 옥합과 머리카락으로 드러내었다.

###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린 회개

한편 티치아노는 30여 년이 지난 뒤 같은 주제를 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마리아의 진정한 회개와 변화된 삶, 그리고 그 삶 속에 녹아든 헌신을 그리고자 하였던 것은 아닐까? 이처럼 나의 의지에 근거한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로 빚어진 헌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일 것이다.

[GNPNEWS]

이상윤(미술평론가)



▶ 작품설명: 티치아노, <참회하는 막달라 마리아(Penitent Maria Magdalene)>, 1565년 작, 유화, 119x98cm, Hermitage Museum 소장, Saint Petersbu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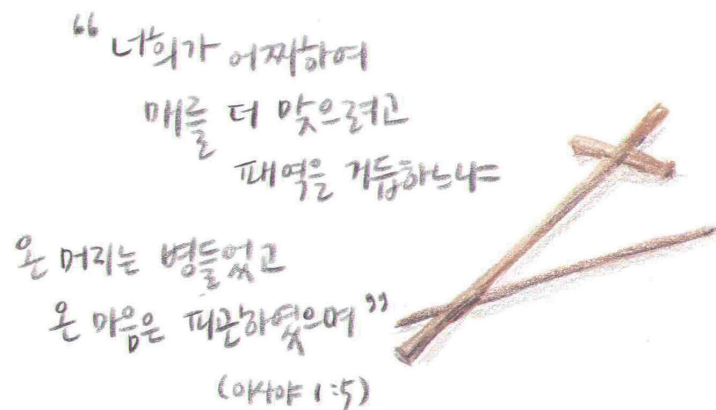
일상에서 만난 하나님 | 육아 (1)

##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싫어한 것도 용서해주세요”

아내를 신앙훈련에 보내 놓고, 갓 4살 된 아들과 단둘이 일주일을 함께 지냈다. 이 기간 나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만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

아들과 함께 놀아주면서 첫 출발은 행복하듯 했다. 그러다 아들의 반복되는 거짓말 때문에 그 행복한 시간은 산산조각이 났다. 처음에는 용서해주고 다시 가르쳐 주며 아들이 정직하게 반응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거짓말은 때마다 계속 되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분이 누구인지 물어도 일부러 끝까지 대답하지 않기도 했다.

결국 매를 들었다. 한 대, 두 대, 열 대... 많이 맞아도 이내 그 매에 익숙해지고, 또 거짓말과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의지를 더하는 것 같았다. 이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이 안에 어떻게 이런 악독함이 숨어 있었을까?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 목욕을 시킬 때 보니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아프다고 하면서도 해맑게 웃는 아이에게 약을 발라주며 울어야만 했다. '더 이상 때릴 곳이 없는데..., 아빠로서 아들을 이대로 둘 수는 더더욱 없는데, 얼마나 더 맞아야 돌이킬 수 있을까요.'하며 기도할 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



일러스트- 이수진

으며"(사 1:5)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새겨졌다. 주님께 반역하며 멸망의 길로 치닫는 우리에게 사랑의 매를 들어도 돌이키지 않는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던 중 주님은 "그러면, 너는 어때니? 너는 고집스럽지 않느냐?"하고 거꾸로 내게 물으셨다. 아들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 내 마음이 또한 얼마나 고집스러운지를 비추어주셨다. 너무 죄송했지만 기뻐다. '선약과'를 두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다. 내가 선약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신 것은 '사랑'때

문이었다. 우리가 스스로 하늘 아빠의 사랑을 믿고 선택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친히 완전한 공의와 사랑의 십자가 복음을 준비하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사랑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그분의 채찍질조차 우리의 죄의 고집에 비하면 얼마나 오래 참으신 것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아들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주지 못함이 너무나 미안했다. 그렇게 복음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아들을 끌어안았다. 하늘 아빠의 사랑. 그 복음을 아들에게 나누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고백했다. 아들은 해맑게 웃으며 "괜찮아요. 용서 할게요."라고 대답했다.

그렇게 아들과 새로운 관계가 시

작됐다. 아들이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이다. 말씀암송 노래를 함께 불러보고 싶었는데, 이전에는 그냥 시켰겠지만 이제는 선택권을 주어 의사를 물어보았다. 머뭇거리던 아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불렀더니 아들이 금세 따라 불렀다. 이후 계속 노래를 흥얼거리며 행복해 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 아들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

주님의 은혜에 기뻐다.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수 생명을 의지하여 자발적인 순종을 드리는 아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가 먼저 십자가에서 증인으로 서서 오직 주님의 역사만을 기대할 것을 결단케 하셨다.

아들에게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겠냐고 물었다. 아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 기도 끝에 예수님 이름을 부르기 싫어한 것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 '정말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게 확증시켜 주셨다. 어린 양을 맡기실 때 사랑의 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조금 이해할 수 있었다. 주님이 주신 이 자유를 이제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을 것이다.

[GNPNEWS]

권효석 선교사

### 구독신청 안내

구독부수는 최소 1명 이상에게 복음을 나누며 전하도록 2부, 20부, 100부 이상 신청받고 있습니다. 구독료는 받지 않습니다.

### 후원 안내

복음기도신문은 동역자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제작·배포되고 있습니다. 동역하실 분들은 아래 후원계좌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651001-01-343666  
예금주: 복음과기도미디어

### 후원자 명단

2018. 2. 22 ~ 3. 8 (가나다 순)

### 개인

김대혁 김사회 김성훈 김애심 김유남 김장일 김정화 김태진 김혜신 노은옥 박성규 박숙자 박승은 송경희 안민자 안수경 안현숙 윤경석 윤해균 이남준 이란영 이 순 이준진 장 진 정영숙 정윤희 조경미 조남미 조명숙 조형광 주유순 최근희 무명

### 교회 및 단체

겨자씨선교회 그루터기교회 김화제일교회 마하나임심대교회 문광교회 부천좋은교회 산돌교회 샘물교회 선한목자교회 시은좌교회 열매교회 전주온누리교회 죽전교회 처음사랑교회 천보산민족기도원

"동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기사 제보·구독·헌금·동역 문의는 아래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 070-7417-0408~10  
E-mail: gnpnews@gnmedia.org (31952) 충남 서산시 운산면 원평3길 8  
페이스북 www.facebook.com/gospelprayernews

발행인 겸 편집인: 김강호, 인쇄인: 이병동 [(주)아이피디]. 2010년 12월 1일 등록번호 충남, 다01355.(격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